



광주보훈병원, 성과 향상 보고회 개최

광주보훈병원은 지난 18일 전문진료센터 2층 소통실에서 2023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한 것을 기념, 2024년에도 동일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한 번 더 실천하기' 성과 향상 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

21일 광주보훈병원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병원 내 각 부서의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보훈병원은 이번 성과 향상 보고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 직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병하 기자



서부소방, '119소방연구 광주대회' 최우수상

광주서부소방서가 '119 소방정책연구 광주대회'에서 1위를 차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오는 10월 전국대회 광주대표로 참가하게 됐다.(사진)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8일 광주 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36회 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서부소방서가 1위를 차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 및 119소방정책 발전을 위한 자율 주제로 광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 등 5개 소방서가 모두 참여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연구논문 1차 심사와 이날 발표대회 현장심사를 거쳐 순위를 결정했다.

대회 결과, '웹 기반 소방자료관리시스템 개발 및 효과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 서부소방서가 1위를 차지, 최우수상(광주 시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노병하 기자



'인사이드 아웃2' 800만 관객 넘겼다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2'가 80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사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인사이드 아웃2'는 21일 공개 40일만에 누적 관객수 800만명을 넘어섰다. 전날까지 관객수는 794만명이었다.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8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파묘'(1191만명) '범죄도시4'(1150만명)에 이어 3번째다. 역대 국내 공개 애니메이션 영화 중 800만명이 넘게 본 것 역시 '겨울왕국2'(1374만명) '겨울왕국'(1029만명)에 이어 3번째다.

픽사 스튜디오 28번째 장편영화인 '인사이드 아웃2'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라일리의 감정 조절 본부에 불안·따분·당황·질투 등 새로운 감정이 합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2015년에 나온 전작은 국내에서 497만명이 봤다.

'인사이드 아웃2'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흥행세를 기록하며 전 세계 총 매출액 14억5800만 달러를 기록해 올해 최고 흥행작이 됐다. 2위인 '둔:파트2' 매출액은 7억 1180만 달러다.

뉴시스



광주소방, '파라과이 소방대 연수교육' 성료

광주소방안전본부는 파라과이 소방대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광주소방학교에서 진행한 연수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사진)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연수교육은 파라과이 소방대 18명을 초청해 양국 간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공유하고 광주소방의 소방역량과 기술을 전수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소방차량 조작훈련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지휘역량 강화 교육 △교통사고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재난 상황별 대응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진행했다.

또 전남소방교육대를 방문해 실화재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여수산단 GS칼텍스에서 화물화재 사고대응 소방훈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실전과 같은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노병하 기자



코레일 광주, 성희롱·괴롭힘 근절 결의대회

코레일 광주본부는 지난 19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부 회의실에서 사내 성희롱·괴롭힘 근절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사진)

이번 결의대회는 김영진 코레일 광주본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했으며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근절과 존중과 배려의 건전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했다.

이날 낭독한 선언문에는 △직원 상호간 인격적 존중과 배려 △성희롱·괴롭힘 근절 △2차 피해 방지 △부당한 사적 업무지시 및 비인격적 언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영진 코레일 광주본부장은 "조직 내 성희롱과 괴롭힘 예방은 무엇보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하고 조직문화로 정착돼야 하기 때문에 선언문을 채택하고 직원과 함께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주교통공사, 여름철 재난 대비 특별점검

장마를 맞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광주교통공사가 한여름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CEO 흑서기·풍수해 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사진)

21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점검에는 조익문 광주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점검에서는 폭염에 대비한 전동차 검사와 안전관리 실태, 집중호우 대비 엔진펌프 작동 상태 확인, 레일살수장치 작동상태 점검 등 각 현장 시설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조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철저한 예방 점검을 펼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 북부소방, 주택밀집지역서 방수훈련

광주 북부소방은 지난 18일 관내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인 광주 북구 임동 주택밀집지역을 찾아 소방차량 출동장애요인 파악과 방수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

주택밀집지역서 소방호스 전개방식을 비교해 현장 적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훈련에서는 소방차량 간 적정 부서위치를 확인, 중계방송, Y커플링을 활용해 방수훈련을 실시하고 방수압력을 측정했다.

김재하 북부소방 현장대응단장은 "관내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은 지속적인 지리조사와 현지적응훈련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원만히 준비해 신속 대응하고 최적의 화재진압전술을 펼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뉴진스 표절 시비 제기 英밴드 샤카탁 "음악학자 고용"

걸그룹 '뉴진스(NewJeans·사진)' 측과 영국 재즈 펑크 밴드 '샤카탁(Shakatak)' 측의 표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샤카탁 측은 뉴진스의 히트곡 '버블검'이 자신들의 곡 '이저 새드 댄 댄(Easier Said Than Done)'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샤카탁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저희 퍼블리싱 회사인 와이드 뮤직 그룹이 해당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음악학자를 고용해 이번 건을 더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팬들이 '이저 새드 댄 댄'과 관련해 보내준 의견에 감사하다"고 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샤카탁 측이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해 '버블검'이 '이저 새드 댄 댄' 작곡을 무단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끝자로 한 내용을 회신했다. 샤카탁이 이에 대해 재입장을 낸 것이다.

어도어는 회신 내용에 "'버블검'은 샤카탁의 작곡을 무단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공신력있는 분석리포트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썼다.

앞서 영국 와이드 뮤직 그룹(WISE MUSIC GROUP)은 지난달 17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를 비롯 모회사인 하이브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수신자로 지정해 "'버블검'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입장이



담긴 문서를 전달했다. 샤카탁 측은 두 곡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리듬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점, 템포의 유사성('이저 새드 댄 댄' 104 BPM·'버블검'은 약 105 BPM)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지난 4월27일 뮤직비디오로 시티팝 풍의 '버블검' 노래가 공개된 직후 일부 온라인 '이저 새드 댄 댄'의 일부 멜로디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퍼졌다. 일각에선 기존 곡의 일부를 따는 '샘플링'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샤카탁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누리꾼들이 이와 관련 의견을 묻자 "조사해 보겠다. 비슷하다"고 답했다.

'버블검' 작곡가 명단엔 250, 오스카 벨(Oscar Bell), 소피 시먼스(Sophie Simmons)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재 표절 시비를 가릴 때 쟁점이 되는 건 악곡의 레퍼런스(참조), 간접 인용 등의 여부 그리고 분위기 등이다.

뉴시스

트와이스 정연 '활동 중단 후... 취미 찾으려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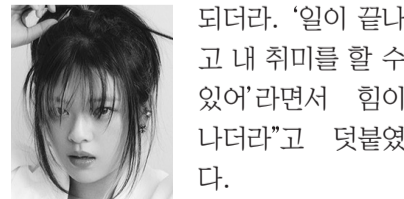
그룹 트와이스 정연(사진)이 활동 중단에 대해 얘기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감별사가 공개한 영상에선 정연이 김재중 소속사를 찾았다.

회사 건물을 둘러본 두 사람은 매운 음식을 먹기 위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며 연예계 활동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정연은 "한 차례 활동 중단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 뒤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취미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동기 부여가



되더라. '일이 끝나고 내 취미를 할 수 있어'라면서 힘이 나더라"고 덧붙였다. 김재중은 "연예계 일을 20여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다. 조금 더 팬들에게 보답을 하려면 뭘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표현도 오히려 10대, 20대 때 못하다가 나중에 점점 더 잘하게 된다"고 했다.

뉴시스